

中韓國際結婚과 朝鮮族社會의 현주소

(중국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延邊大學 民族研究院 全信子)

緒 言

婚姻은 男女兩性の 結合이고 一定的한 時代와 地域의 社會제도, 文化 및 倫理道德規範이 인정하는 夫婦關係이다. 혼인은 비록 自然적인 屬性의 영향을 받지만 주로 社會關係의 制約을 받으면 物質資料의 生産方式에 의해 결정된다. 지구상에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모두 자기의 독특한 혼인형태가 있고, 그 발전 규칙은 사회발전에 의해 不斷한 변화를 일으킨다. 글로벌시대에 들어서면서 國家間的의 有形 혹은 無形적인 제한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각종 교류를 막을 수 없다. 資本, 技術 및 情報가 國境을 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流動도 전례가 없으며, 세계는 一體化로 나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인 삶의 방식도 도전을 받고 사람들은 田園적인 農耕사회를 고수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貧困을 벗어나려고 한다. 국제결혼이 바로 新奇하고 富餘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典型的인 표현형식이다. 중국에서 특히 改革開放 이후 혼인은 이미 國境, 種族의 장벽을 넘었다.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도 國內의 국제결혼과 같이 돌출한 사회현상으로 되었다.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정식으로 수교함에 따라 兩國간의 경제문화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조선족여성들은 한국으로 시집을 갔다. 그들은 친척들이나 친구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婚姻中介를 통해 한국남성들과 사귀고 한국으로 시집가는 목적을 이루었던 것이다. 물론 중국보다 더 발달된 경제조건, 동족 문화의 동질성 등은 조선족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아래에 이런 혼인과정에 나타난 여러 점에 대해 요약하여 살펴보려 한다.

1.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의 기본모델은 “交換婚姻”.

婚姻에 대한 연구에서 인류학자들은 여러 학파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구조기능론과 구조주의 이론은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대표적인 학파이다. 그들은 진화론과 모건(Morgan)의 研究構想을 이어서, 혼인을 친속관계의 분석에 입각하면서 각기 어떤 계통을 혈통으로 지정하는가 하는 원칙분석에 따르는 “家系論”과 인류사회에서 오직 고정적인 姻緣을 맺는 형식을 통하여 친속관계가 건립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連婚論”¹을 제기하였다. 家系論은 친속제도의 縱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혼인은 가정간의 선대와 후대의

¹ (法) 弗朗索瓦茲·佐納邦德. 緒論：論家庭——用人類學的眼光看親屬關係與家族. 原(法) 安·比爾基埃等. 家庭史(第一卷): 遙遠的世界, 古老的世界. (袁書仁等譯)北京. 三聯書店. 1998年. 第36—38頁.

관계로 보고, 사회구조의 새로운 조합일 뿐이라고 인정한다. “連婚論”은 “交換婚姻”을 중심으로 하고 橫적인 連婚을 모든 사회조직의 기초로 보기 때문에 連婚을 家系보다 중히 여긴다. 이외에도 기타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예컨대 일부 학자들은 미시적인 경제학 시각에서 혼인을 연구하여 결혼의 목적은 혼인과정에서 최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것은 連婚論과 비슷하다.

근간 중국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 사이에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連婚論”에 가까운 편이다. 그들의 혼인은 의미심장한 “交換”, 혹은 互惠 성격을 띠고 있는데, 서로 等價에 가까운 혜택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다. 혼인에 관한 이론은 다양한데 교환이론이 그 중의 하나이다. 이 이론은 배우자선택의 행위에서 자기에게 최대한의 補償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均等한 資質을 갖는 사람이 피차 최대한의 보상을 서로 교환한다는 것이다.²

社會交換은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적 역할의 위치에서 상호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이고, 사회교환의 核心은 資源이다. 사회교환은 쌍방이 각기 가진 여유있는 資源(代價)을 대방의 필수적인 기타 자원(보상)과 서로 바꿀 수 있는 상호 움직이는 방식이다.³

자원을 교환하는 가치와 상호적인 수요는 상호연계를 갖는다. “행동자는 대방의 자원이 가치가 있다고 느낄수록 그들 간에는 교환관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행동자는 특정 유형자원의 수요가 각박할수록 자원은 그에게 더욱 가치가 있다.

조선족여성들이 한국남성들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한국남성이 처한 사회환경조건이 자기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남성들이 조선족여성들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비용을 쓰지 않고 아내를 받아들여서 후대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교환관계는 資源상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즉 조선족여성들이 자기가 具備하고 있는 자원(年齡, 容貌)과 한국남성이 具備하고 있는 자원(居住場所)을 교환하는 것이다. 여기의 자원은 목적을 추구하거나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場所의 資源”은 경제가 우월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居住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高學歷, 高收入은 自立 조건이 되는 자원이며 출국이 가능한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조선족여성의 대다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자원이 具備되지 못하고 이를 대신하는 것은 “젊은 나이, 언어교류”의 능력이다.

한국남성은 年齡상에서 보면 30-40 대 사이가 제일 많고 남녀쌍방은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初婚이 半을 점한다. 한국남성은 財力상이나 能力상으로 보아서 결혼을 할 충분한 자원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국의우월한 경제적인 “장소의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여성들에게 유혹적인 魅力은 한국남성 본신이 아니라 한국이란 이런 장소이다.

한국남성의 이런 자원은 여성들에게 최대의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한국이란 장소에서 조선족여성들은 중국보다 몇 배 혹은 십 배 이상의 로임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비록 中韓兩國이 정식수교하였지만 조선족을 놓고 말하면 한국은 여전히 진출하기 힘든 나라이다. 결혼을 맺으면서 “뒤따른 효율” 즉 다른 비용 없이 여성측의 부모와 친척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연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다. 조선족여성의 자원을 놓고 말하면 첫째, 젊은 나이로 한국남성들의 대를 이어가는 합당한 선택이 된다. 둘째, 문화상의 동질성은

² 崔在律<가족사회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1988년,108쪽

³ 卜長莉 <社會資本과 社會和協>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5년 234쪽.

“交易”에서 자본을 대폭적으로 下降하였다. 즉 민족이 같고 언어가 통하고 공동한 문화역사배경은 교류에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信任程度를 증가시켜 자본의 투입에 더욱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원 교환으로서 혼사는 성사되기 쉽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선족여성들이 한국남성을 선택하는 주요 理由는 환경이라고 하는 비율이 도시는 33.8%이고 농촌은 46.1%를 점한다. ⁴ 그러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나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란 경제적인 이유가 69%나 되었다.⁵

필자는 한국에서 40 여명의 조선족여성들을 인터뷰하였다. 물론 국제결혼의 모델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모델은 “교환혼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再婚여성들은 거의 이러한 형식이다. 국제결혼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장결혼”도 역시 어느 정도 “교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金錢”과 “國籍”을 교환하는 것이다. 조선족 여성들은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면 한국남성은 그에 따라 결혼을 맺고 2 년이 지나면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은 “교환”으로서 혼인을 맺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었다.

2. 조선족여성의 국제결혼은 不平等한 거래관계를 표출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은 거래의 도경, 혼인의 성사, 혼인이민, 혼인상황까지 모두 불평등한 거래관계를 표출하였다.

(1) 거래 도경

조선족여성들의 국제連婚의 도경은 대부분 친척과 친구의 사회관계, 중개소개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친척친구 및 婚姻紹介所의 소개로 한국으로 시집을 갔다. 아래의 표에서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의 도경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출신국별 만남 방법⁶

(단위:%, 명)

(N)	중국동포 (449)	중국한족 (163)	일본 (101)	필리핀 (77)	베트남 (65)	태국 (18)	몽골 (14)	구소련 (29)	기타 (26)	전체 (942)
소개	67.9	58.3	4.0	35.1	26.2	33.3	0	20.7	26.9	49.9
부모형제 소개	8.	1.9	0	4.0	3.2	0	0	0	0	4.7
친척 소개	25.	9.3	4.3	8.0	8.1	5.3	0	3.4	0	15.4
친구·선후배소개	22.	30.9	0	13.3	12.9	15.8	0	6.9	21.7	19.2
잘아는 소개	12.5	16.0	0	10.7	4.8	15.8	0	13.8	8.7	11.0
결혼중개업체	10.2	8.0	0	11.7	55.4	5.6	57.1	37.9	0	13.2

⁴ 설동훈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정책방안>보건복지부 2005 년 , 76 쪽,

⁵ 위와 같음 .75 쪽.

⁶ 위와 같음,.67 쪽..

행정기관 주선	0.2	0	0	1.3	3.2	0	7.1	0	0	0.5
종교단체	1.3	0	92.1	40.3	0	38.9	0	10.3	19.2	15.4
직접적인 만남	14.7	31.9	2.0	7.8	9.2	16.7	21.4	27.6	15.4	15.9
기타	5.6	1.8	2.0	3.9	6.0	5.6	14.3	3.4	38.5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편을 만나게 된 방법⁷
(단위: %, 명)

	전체 (946)	도시		농촌	
		중국조선족 (369)	기타 외국 (334)	중국조선족 (81)	기타 외국 (162)
소개	49.3	65.3	35.9	79.0	25.3
부모형제의 소개	4.8	6.7	1.2	14.5	2.7
친척소개	15.3	25.1	7.5	25.6	3.7
친구·선후배소개	19.1	19.1	18.9	38.2	9.5
잘아는사람소개	10.9	15.0	8.9	1.9	10.4
결혼중개업체소개	13.4	9.5	15.3	13.4	18.3
행정기관주선	0.5	0.2	0.6	0.0	1.0
종교단체	15.6	1.5	23.6	0.6	39.3
직접 만남	16.1	17.0	19.1	4.6	13.9
기타	4.3	5.9	4.7	1.3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조선족여성들은 친구나 친척들의 네트워크관계로 한국 도시를 시집가는 비율은 농촌보다 높고 혼인중개업체의 소개로 한국 농촌으로 시집가는 비율은 도시보다 더 높다.

(2) 거래의 방식

1996년 이후 中韓兩國은 국제결혼의 서류를 접수할 때, 한국남성이 중국에 入國한 證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남성들이 중국에 와서 선을 보고 혼인성사를 결정한다. 한국남성들은 선택의 주동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중국을 진출하여 여성을 선택하며 여성의 家族關係, 生活環境을 요해함으로써 자기의 요구에 맞게 선택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한국법의 제한을 받아 자유롭게 한국을 진출할 수 없으며 국제결혼의 선택에서는 被動적인 위치에 처하고 있으며 남성의 家庭, 財產, 職業, 生活環境 및 個性에 대해서는 오직 대방의 口述과 中介者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되며 진실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남성의 나라에 대해서도 역시 間接적으로 신문매체 등을 통하여 요해를 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거래의 현실은 平等과 公正性을 保障할 수 없다. 우선 남성과 여성간의 權力관계에서 혼인거래 자체가 불평등하다. 둘째는 직접적으로 남성의 身元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前提下에서 거래하는 것이 필연코 여성들에서 불리하게 된다.

⁷설동훈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보건복지부 2005년, 68쪽.

한 설문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혼인중개업체가 소개한 배우자 사전 정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예컨대 가족관계, 직업, 학력, 경제수입, 건강상황, 성격 등 차이가 난다. 특히 성격방면의 차이는 결혼 이민자의 總數字의 37.9%에 달한다. 조선족 여성의 배우자 중에서 도시는 38.1%, 농촌은 심지어 51.1%를 점한다. 그리고 배우자 경제수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도시는 25.5%를 점하고, 농촌은 13.8%를 점한다. 직업에 대한 정보도 도시와 농촌이 부동하다. 도시는 15.2%이고 농촌은 18.4%이다.⁸

(3) 結婚移民

한국정부에서는 국제결혼자의 국적취득권리상의 남녀불평등 규정을 폐지하고, 위장결혼을 막기 위하여 1997년부터 국적취득시간을 과거의 2주를 결혼생활이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변경하였다. 이 기간에 조선족여성들은 결혼이민자로서 배우자와 동거하고 반드시 체류기한의 연장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속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이 陪同하여야 한다.(현재는 제 3 자도 신원 담보를 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혼이민자의 合法적 移民權利가 확고하게 남편에게 장악되고 그의 運命도 완전히 남편에게 장악됨을 말한다.

結婚前에는 조선족여성들은 한국을 진출할 수 없고, 그들은 결혼 수속을 완료하여야만 한국행의 (F-1) 비자를 받는다. 국내에서 짧은 시간에 만난 남성은 “包裝”한 “精品”이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포장”을 헤치면 “劣質品”이었다. 意想 외의 遭遇와 현실 앞에서 조선족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였다. 그들은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친척이 없고 힘이 약하다. 만약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면 한국여성처럼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을 청하고 혹은 有關部門에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원한을 풀 수도 없다. 친척이나 친구의 네트워크도 한도가 있는데다가 법률의식도 薄弱하여 有關부문의 보호를 받자해도 어떠한 방식을 택하여야 하는지 모른다. 生疎한 환경과 돌연적인 남편의 변화에 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늘 피동의 지위에 처하고 있다.

(4) “위장결혼”

“위장결혼”은 조선족여성들이 한국을 진출하기 위하여 한국남성을 선택하여 자기의 남편으로 위장하고 쌍방은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 계약은 金錢交易으로 이루어진다. 남자는 미래의 “남편”으로서 여자를 위해 有關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혼인등기를 완성하지만 진정한 혼인의 생활과 夫婦義務를 실시하지 않는다. 쌍방은 각기 수요에 따라, 여성은 이로써 한국을 진출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남자는 여성의 손에서 거대한 금액의 비용을 얻게 됨으로써 쌍방의 계약은 완전히 끝난다. 이러한 婚姻意向이 없는 위장결혼자도 역시 비율을 많이 점한다.

1997년부터 한국정부는 이러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하여 결혼생활이 2년간 지속되어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부 한국남성들은 조선족여성들이 2년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안한 心理와 자기가 법률상으로 優勢함을 이용하여 조선족여성들을 박대하거나 性희롱을 가한다. 그들은 돈을 달라고 협박하거나 같이 부부생활을 하자고 협박을 한다. 만약 조선족여성들이 이에 反抗하면 위장결혼자로 신고한다고 위협하기에 법의식이 약한 여성들은 할 수 없이

⁸ 参照薛东勋. 国际结婚移民女性实际调查及保健·福利支援政策方案. 韩国.保健福利部.2005年.第77-78页.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남성에게 바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정부의 단속에 잡히면 여성은 그대로 추방당하지만, 혼인관계는 여전히 기혼상태로 남아 남편이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관계가 끝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피해는 남성보다 더욱 크다.

3.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조선족사회의 현주소를 반영

20 세기 90 년대 이후, 중국정부가 社會主義市場經濟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延海, 延邊, 延江地區를 개방하는 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동북에 위치한 조선족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국제상 냉전의 終結과 우리나라 周變 국가들 관계가 개선된 후, 우리나라의 陸路邊江의 외부 환경은 현저하게 好轉되었다. 對內적인 교류가 광범해지고 對外적 개방의 확대는 조선족들에게 커다란 經濟活力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물질생활 환경도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조선족사회의 문화생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발전의 基點이 총체적으로 낮고 기초시설이 낙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생산력의 수준은 내지와 특히 東南沿海地區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地緣적 우세와 人緣적 우세를 이용하여 신속히 경제를 발전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중국과 한국관계의 호전으로 조선족 사회의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에 전례없는 기회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

(1) 국제결혼은 대폭적으로 늘어 남

조선족은 한국과 근 半世紀 동안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었다. 1988 년 서울 올림픽대회가 중국조선족이 한국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92 년 中韓修交는 兩國間의 경제문화 교류의 통로를 넓혔다. 조선족들은 친척방문, 産業研修, 韓國留學을 하고, 한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공장을 꾸리며 경제활동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거래가 있었고 중한간의 국제결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통혼자들의 네트워크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히 商品化한 혼인매체들이 나타남으로써 혼인의 내적인 성격에 변화를 일으켰다. 혼인은 단지 “대를 잇다” 혹은 “교환” 의미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민과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아래의 국제결혼 통계표로 중한국제결혼의 흥기를 설명할 수 있다.

중국여성과 한국남성의 혼인신청건수, 1990-2002⁹

년도	혼인신청건수	년도	혼인신청건수
1990	88	1997	7,362
1991	106	1998	4,688
1992	429	1999	2,883
1993	1,851	2000	3,586

⁹ 韩国. 统计厅. 2003 年.

1994	2,043	2001	7,001
1995	8,450	2002	7,041
1996	9,271	合計	54,799

沈陽 駐在 韓國領事館 관계자에 따르면 2003 년 하반기에 약 1 만명 미만, 2004 년 1 만 6 천명, 2005 년 6 월까지 약 8 천명의 중국조선족여성이 결혼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1990 년부터 2005 년 4 월까지 한국으로 시집 간 여성은 7 만여 명에 달한 셈이다. 시골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한국으로 시집가는 여성이 없는 곳이 없었다.

(2) 조선족사회에 미친 영향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 인원의 증가에 따라 女性人口는 대폭적으로 流失되고 男女比率이 엄청나게 失調되었다. 어떤 마을에는 심지어 몇 십 대 일 성별 비율이 나타났다. 노총각이 증가하고 장가들기 힘들며 조선족 인구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추세이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年齡層은 시골의 성별비율이 더욱 높았다. 농촌인구 流動은 더욱 활약하고 특히 경제활동의 연령층 여성 중에서 더욱 뚜렷하다. 예컨대 安圖縣 三道鄉 北道마을에서는 120여 호가 있는데, 유동 호수가 50여 호이며, 실제 주재한 호수는 74 호이다. 人口는 239 명인데 혼인연령층인 7 명 여성 가운데 4 명이 한국으로 시집을 갔고 한국에서 돈벌이 하는 호수가 10 여 호 된다. 인구 남녀 성별비율은 8:1 이다. 마을에서 40 이 넘는 노총각들은 배우자를 찾기 어렵고 인구 출생률은 急減하여 학교는 학생래원이 없어 문을 닫게 되었고, 소학생들은 15 리 되는 삼도향 漢族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¹⁰. 이러한 마을은 연변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조선족여성 인구가 유실됨에 따라 농촌의 총각들은 장가들기 힘들어 出生아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예컨대 연변조선족자치주는 2000 년말, 조선족 인구는 843, 135 명이고, 연변총인구의 38.55%를 점한다. 1996 년부터 2000 년까지 5 년 사이에 연변조선족 인구는 매년 마이너스로 내려가 1996 년은 1995 년보다 789 명이 감소되고 2000 년은 1999 년보다 5013 명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조선족의 출생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변조선족 출생율은 1990 년에 현저하게 하강했지만 초기에는 매년마다 만 명 좌우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0 년에는 4 천 명도 안 되었다.¹¹

이뿐만 아니라 조선족사회에서는 離婚현상도 비교적 뚜렷하다. 조선족자치주통계자료에 의하면 연변조선족의 이혼율은 1999 년에는 절반 이상이 넘어 대대적으로 미국의 이혼율을 초과하였다.¹² 또 다른 신문보도에 의하면 2004 년 연길시의 조선족 이혼율은 68.4%이고, 이혼한 50%의 여성은 국외에 돈 벌러 갔다고 한다.¹³ 이러한 數値는 개혁개방 이래 出國熱風과 아울러 이혼율이 上升함으로써 조선족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¹⁰ 延边朝鮮族自治州安圖縣三道鄉北道村社會調查. 2003 年 5 月 18 日.

¹¹ 參照：關於延邊朝鮮族人口負增長問題的調查報告。延邊朝鮮族自治州政府發展計劃委員會社會處. 2001 年 12 月 17 日.

¹² 황유복. <사랑의 사회학> 민족출판사. 2005 년. 97 쪽.

¹³ 황유복 <사랑의 사회학> 민족출판사. 2005 년. 143 쪽.,. 흑룡강신문. 2005 년 1 月 26 日. 재인용.

이혼가정은 健全한 부모사랑이 없고 청소년들은 쉽게 否定的인 개성을 형성하게 된다. 安정한 가정환경이 없어서 그들은 孤獨을 느끼고 恣肆적이고 冷淡하며 법률법칙과 道덕규범을 蔑視하여 부정적인 행위가 나타나므로, 缺損가정의 아동교육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3) 상이한 人生觀과 價值觀의 體現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의 모델은 다양하여 상이한 人生觀과 價值觀을 體現하였다.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의 기본적인 모델은 “교환혼인”이다. 즉 한국남성이 가지고 있는 환경자원과 조선족여성들의 연령자원의 교환이다. 이러한 교환은 여성가족에게 많은 경제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혼인에 부여하는 의미는 하나의 대를 이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連婚을 하여 출국의 경로를 넓히고 자기 가족의 재부를 확장한다.

일부 조선족여성들은 혼인 형식으로 貧困을 탈피하고 이로써 자기의 經濟地位를 提高한다. 더욱 심각한 사람은 개인의 出國과 돈벌이 목적을 위하여 “가짜이혼” 혹은 “위장결혼”의 형식으로 한국에 결혼이민을 하며 자기의 終身大事를 자기 경제욕망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다.

과거에 조선족은 혼인관계를 一生의 結合으로 보고 남녀쌍방이 일단 결혼하면 감정기초가 없더라도 혹은 감정이 깨졌더라도 백발까지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 완전히 否定的인 태도를 취하고, 결혼하면 시댁의 사람이고 죽어도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혼자를 아주 기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貞操관념도 역시 강하였다. 특히 여성으로서 貞潔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겼다. 사람들의 윤리관은 男女有別이고 여자에게는 “貞潔”이 婦德의 첫째가 되었다.

조선족 習俗에는 처녀가 약혼식을 하면 결혼과 동등하게 대하고 쌍방이 헤어지면 이 처녀는 다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서 생활조건의 개선, 텔레비 등 매체의 홍보가 확대되고, 특히 아동의 영양이 충족함에 따라 신체발육이 빨라지고 일찍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 西方의 문화가 대량적으로 들어오면서 “性”에 대한 화제도 禁區가 아니고 전반 사회에서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또 일부 남성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덕의 最低基準을 벗어나 不正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의 夫人을 한국남성에게 “시집”을 가게 하여 이익을 얻는다. 부인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가짜이혼”, “위장결혼”의 대가로써 자기의 경제욕망을 만족시킨다.

이익만 있다면 혼인도 하나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된 것이다. 조선족여성들 중에 국제결혼자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조선족 전통적인 人生觀과 價值觀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윤리도덕과 正조관념을 지키지 않고 實效적인 물질생활의 享樂을 추구한다. 일년 사계절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고 이익을 창조하는 개방적인 방식을 택한다. 밤낮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도시에 진출하거나 국외에 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農耕民族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유방식이 市場經濟의 충격 하에서 점차적으로 현대적인 개방적인 행위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의 현상은 바로 가치관념의 재구성을 말해주고 있다.

(4) 조선족여성들의 地位 再定義

대량적인 조선족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감으로써 중국 조선족사회에 많은 문제를 조성하였다. 즉 인구의 마이너스 증가와 함께 농촌총각들이 장가가기 어렵고

이혼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며 缺損가정의 아동교육이 위기에 처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어떤 학자들은 “조선족사회의 未來는 여성에게 달렸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족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조선족사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지만, 그의 주류는 우월한 물질문명을 추구하는 하나의 經濟行爲이다.

조선족여성들은 국제결혼의 형식으로써 자기의 경제지위와 생활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전반 가족이 차원이 높고 품위가 있는 생활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들은 국제결혼에서 多重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家族生計의 부담자이며 또한 딸, 처, 모친의 책임을 맡게 된다. 시집을 감으로써 딸로서는 친가에 “뒤따른 효율”을 가져다 주고, 부인으로서는 가족에게 경제이익을 창조하며, 어머니로서는 자식의 前途에 도움을 준다. 자기의 노동 소득으로써 자식을 거액의 비용이 드는 국외 유학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先進적인 교육을 받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조선족여성들이 품위가 있는 생활을 추구하고 새로운 文化를 慾求함을 반영한다.

한국에 시집 간 조선족여성들은 文化差異, 移民差別視, 부정적인 이미지 등 차별 앞에서 의지를 꺾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 안산시, 성남시, 군포시 등에 사는 40 여명 결혼이민의 조선족여성들은 남편이 돈을 벌어 오면 그냥 살림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출산 때문에 短期적인 휴식은 있어도 모두 남편과 같이 맞벌이를 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하였다. 근면하고 사회능력이 뛰어난 조선족여성들은 언제나 자기의 분투목표를 높이 세웠다. 國際結婚情報院의 어느 원장의 소개에 의하면 한국에서 이혼을 한 조선족여성들은 한국에서 생존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발전의 목표를 일본으로 향한 사람들이 날로 많아진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족여성들의 추구를 반영한다. 비록 자기본신은 이국타향에서 많은 모욕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운명에 대해 굴복하지 않았다. 비록 혼인이 파열되거나 실패되어 생활에서 커다란 좌절을 당하고 심리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노력과 추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끝없이 꾸준히 挑戰하고 競爭하며 자기의 피땀과 聰明才智로써 아름다운 생활을 개척하여 나갔다. 조선족여성들은 送出國에서나 送入國에서 역시 가족 생계의 담임자였다. 개혁개방이후 조선족여성들은 가장 먼저 시장경제에 뛰어 들어 국내의 향진에서부터 도시까지 김치장사로부터 음식점을 꾸리기가까지 그들의 근면과 재질을 충분히 표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목표를 국외로 향해 邊江의 보따리장사부터 跨國적인 회사에 이르기까지 국제경제무역의 무대에서 그들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들의 국제결혼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주류는 역시 우월한 물질문명을 추구하는 경제행위이다.

4.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의 발전추세와 대책

(1)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인 增加와 慎重적인 發展

중한국제결혼은 중한양국의 경제문화교류와 인적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더욱 지속적으로 증가된다. 특히 1999년 8월부터 한국의 혼인중개업체들이 “許可制”에서 “申請制”로 전이한 후 대량적인 혼인중개기구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혼인중개업체의 소개로 성사된 혼인건수도 날로 많아진다. 연변조선족자치주 婚姻諮問服務會社의 주임 소개에 의하면, 한국으로 시집가기 위하여 每日 회사에

자문하러 온 조선족 여성들은 평균 20여명이 된다고 한다.¹⁴

그리고 중한양국의 국제결혼의 법칙과 규정이 날로 完善함에 따라 혼인중개업체가 많이 정리되고, 국제결혼을 맺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현상을 많이 막았다. 특히 혼인자문복무회사 등 合法的인 기구들이 설립됨으로써 많은 여성들은 국제결혼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오로지 출국하기 위하여 혼인소개소에 신청하고, 자기의 조건보다 훨씬 부족하거나 결혼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承諾하여 盲目적으로 혼인을 맺었다. 거의 한두 번 만나서 혼인대사를 결정했다. 혹시 성사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한국남성이 同意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선족여성들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조선족여성들이 배우자선택에서 本人의 人品, 性格, 能力을 강조하고 자기의 선택표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만나지 않거나 혹시 여러 남성을 만나도 자기의 조건과 부합되지 않으면 모두 다 포기한다. 盲目性이 選擇性으로 전이하고 표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남성의 환경요인을 중시하였는데 현재는 한국남성 본인의 조건을 더욱 중시한다. 이전에는 한국남성과의 만남이 100% 성사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50%도 되지 않는다.¹⁵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은 과거에는 淸一色으로 한국에 이민을 갔는데, 현재는 어느 곳이 더 발전이 있으면 그곳으로 거주하는 多樣的 방식을 추구한다. 조선족여성들이 雙重적인 國籍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결혼해도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방안을 알아보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資金을 모으고 선진적인 經營理念을 배우면서 자금과 기술이 完備되면 중국에 진출하여 공장을 꾸리거나 식당을 경영하거나 經濟實體를 꾸리는 조선족결혼이민 여성들이 날로 늘어났다.

사실상 한국기업이 대량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시장을 점령하며 빠른 시기 내에 뛰어난 업적을 따내는 것도 어느 정도 이런 결혼이민여성의 橋梁적인 역할과 갈라 놓을 수 없다. 중한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에도 조선족여성들의 기여가 크다. 그들은 자기의 言語적 優勢, 地緣적 優勢, 人緣적 優勢로써 중한양국의 경제문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2)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에 관한 대책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은 類形도 다양하고 婚姻動機도 다양하다. 예컨대 感情요인, 環境요인, 經濟요인, 文化요인 등 각기 다르지만, “물은 내리흐르고 사람은 울리흐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유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常理이다.

연길시 혼인등기처에서 필자가 조선족여성들과의 인터뷰에서 늘 듣는 말은 “조선족 남성들을 좋아해서 뭘 해요? 우월한 경제생활을 가져다 줄 수 없고 한국남성들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經濟利益은 多方面입니다” 바로 이런 경제요인으로 조선족여성들이 현재까지 물밀듯이 한국으로 시집을 갔다. 여성인구들이 대량적으로 유실되고, 인구의 유실은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경제이익을 얻고 더 높은 생존질을 추구하는 것과 相關된다. 만약 고향에서 經濟收入을 제고하고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고향을 던지고 이국타향에 가는 사람도 적고 혼인으로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여성들이 인구 유실되는 非正常적인 현상을 막으려면 먼저 반드시 경제를 발전시켜 朝鮮族集居區의 생활조건을 改善하여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¹⁴ 조주임: 연변조선족자치주 혼인자문복무회사 55세, 2006년 2월 8일 상담.

¹⁵ 김주임: 연길시 모 혼인소개소, 남 47세, 2004년 9월 5일, 상담.

근본적으로 조선족여성인구가 유실되는 현상을 피면할 수 있다.

둘째, 중한국제결혼에서 나타난 남녀거래상의 불평등은 브로커들에게 커다란 商品價値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국제결혼중의 폐단을 이용한 틈을 타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손실과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 때문에 우리들은 남녀쌍방의 거래의 영역과 통로를 넓히고 국제결혼의 유관상식을 홍보하는 동시에 한국의 유관국제결혼에 대한 법칙과 규정을 소개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은 “跨國적인 民族婚姻”이지만 백여 년 달라진 역사와 문화환경에서 자라난 조선족여성들은 “同源異流”의 문화정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혼인상의 文化差異 文化衝突도 적지 않았다. 혼인은 남녀간 상호 상이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인데 특히 국제결혼은 더욱 冒險이 높고 蔭患이 많기에 不確定한 요인들이 많다. 예컨대 공동한 문화권이 결핍하고 쌍방은 언어상, 풍속상, 종교신앙상에 모두 차이가 있기에 이것은 모두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에게 事前教育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특강을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多層面으로 한국문화, 한국제도, 한국의 풍속습관을 요해하여야 한다.

넷째, 중한양국의 유관부문에서는 상호 姊妹關係를 맺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단지 혼인중개업체들의 상호관계를 건립할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에 관한 市民團體, 전문가, 학자들이 함께 협력을 하여야 한다. 중한국제결혼은 오직 어느 한 나라의 一方적인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쌍방이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위장결혼”에 대해서는 법률상식의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초래하는 후과의 엄중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결속어

中韓國際結婚은 중한양국의 역사발전과정에서 나타난 鰾연적 현상으로 중국경제체제 전이시기의 조선족사회의 현주소를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중한국제결혼은 여러 모로 조선족여성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윤리도덕관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체현하였다. 조선족여성들이 국제결혼에서 배우자선택방식, 혼인동기, 혼인모델 등은 각기 상이하지만 그 주류는 역시 우월한 물질생활을 추구하는 經濟行爲이다. 중한양국간의 발전상의 차이는 국제결혼의 外部적인 요인이 되고 “同源民族”이란 문화는 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그들의 感情을 增進하였다. 그러나 상이한 체제, 상이한 사회속성과 문화에서 형성한 人格 및 價値觀念은 不同하고 表面적인 문화와 深層적인 문화상의 차이, 身分上的 차이, 사회의 편견과 결혼이민여성의 제한성은 그들로 하여금 결혼생활에서 많은 애로를 직면하게 했다. 그들의 혼인생활은 浪漫적인 幻想생활보다 간고하고 어려운 현실이 더욱 많으며 그들이 면직하고 있는 것은 忍耐, 妥協, 奮鬪의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것은 조선족여성들의 국제결혼 동기에서 지나친 공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婚姻關係는 社會關係의 하나로 역시 자연적으로 特定한 “交易”에 屬하고 실제생활에서는 혼인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혼인관계의 기본적인 규칙은 반드시 感情과 感情의 交換, 多數의 상황에서는 愛情과 愛情의 교환이 되어야 한다. 혼인관계는 반드시 남녀쌍방이 감정교환의 기준으로 長期적인 共同生活關係를 건립하고, 일단 이 기본적인 교환원칙을 違反하면 혼인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否定이 된다.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未知적인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개인의 성격 등 여러 면의 요인으로 인해 단지 낭만적인 무지개가 아니고, 책임과 포용, 그리고 헌신과 의무가 더 많이 뒤따르는 문제이다.